

*경배와 찬양	예배합니다 / 빛으로 비추시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 당신은 영광의 왕 / 더 원합니다.	다같이
대표기도		안혜성
*성경봉독	수 1:7, 단 6:10, 전 4:12	허소정
말씀	일터, 어떻게 지혜롭게 접근할 것인가?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안혜진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 응답찬양

###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길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 일터, 어떻게 지혜롭게 접근할 것인가? (수 1:7, 단 6:10, 전 4:12)

(수 1:7)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네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잘될 것이다.  
(단 6:10)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전 4:12) 혼자서는 질 일도 돌이키는 당해 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일과 신앙의 접목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생각하며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를 접근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세상이 이미 타락하였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접목하며 살려고 하면 많은 저항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0:16)

첫째, “균형감각”을 갖춰라.  
균형감각이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양한 반대되는 논리가 있을 때, 한쪽의 논리에만 천착되지 않고, 양쪽의 논리를 함께 이해하면서 그 문제를 스펙트럼으로 보려는 신중한 자세입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설 위치를 기도하며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는 교훈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먼저, “개인”과 “조직”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나의 성장과, 내가 속한 조직의 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과도히 경쟁적이 되지 않고, 단순히 탁월할 뿐 아니라 탁월함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고, 진정한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음으로, “현실감각”과 “영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터의 기본적인 기능은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인이 일을 탁월하게, 선한 마음으로,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잘 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임무는 소홀히 한 채, 영적인 것만 과도하게 추구한다면 많은 갈등과 무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그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먼저 되고, 그에 걸맞는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매력적인 크리스천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의 기회도 더 쉽게 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타심”과 “자기애”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만큼, 나 자신도 챙기고 보호받기 원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내팽개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착한 사람 신드롬’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둘째, “영적 메커니즘”을 구축하라.  
하루 직장생활 중,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서의 일을 돌아볼 기회들을 시스템화 해 놓는 것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다니엘의 하루 세 번 기도) 저는 다니엘을 떠올리며 “333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는, 하루 세번, 3분 이상, 세가지 기도제목 (하나님, 나, 일터/학교)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출근/등교길, 점심시간, 하교/퇴근후)

셋째, “공동체”로 승리하라.  
성경의 모든 사역은 공동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전도여행 보내실 때 그룹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를 위해, 일터나 학교에서 영적 친구를 만들기를 권드립니다. 그 분과 일주일에 1-2번 함께 만나시고, 삶과 고민과 기도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교회 공동체에서 믿을 만한 영적 친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같은 직장만 아니지만 이 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목회자와 솔직한 관계, 기도요청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균형감각을 갖추고, 영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공동체로 살기를 내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의 주중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주께서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때로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강해 보인다 할 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고 승리할 것입니다. (‘본 회퍼’ 이야기)

### 소그룹 나눔을 위한 가이드라인 (직업군별 나눔)

1. 그동안 한달동안 이어온 일과 신앙의 접목에서 내게 가장 의미있었던 것 한 가지씩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나는 균형감각을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내가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3. 내가 일상에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의 영적 메커니즘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4. 내게는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설교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부 데이지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 파송찬양

###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훈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직업별 소그룹 모임

예배 후에 설교말씀을 가지고 직업별로 소그룹 모임을 갖습니다.

## 2022년 수련회

기간 : 9월 2일(금)~4일(주일)

수련회신청 바로가기



장소 : Camp Buckner (3835 FM 2342, Burnet, TX 78611)

강사 : 왕용민 선교사님 (International Mission Board)

주제 : 다시금 교회로! Back to Ecclesia!

표어 :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세움받고! 교회로 살아가자!"

회비 : 일반 \$80, 학생 \$75

(가족할인: 두번째 사람은 \$5할인, 조기등록할인(8/28까지: 각 \$5씩))

\*회비 납부는 안혜진 자매 (벤모 ID: @Jinny0714)로 해주세요.

준비물 : 성경책, 세면도구, 샤워용품, 타올, 필기도구, 편한 운동복, 운동화, 수영복, 개인물품 또는 텀블러(if available)

- \*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텀블러 가져오시길 권장합니다.
- \* 수련회 참석하시기 전에 개인별 COVID TEST를 부탁드립니다.

## 'PSALM 별이 빛나는 밤에' 사연 받습니다.

9월 3일 수련회 둘째날 밤에 별밤지기가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공동체에 하고 싶었던 따뜻한 말

개인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나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나 하고 싶은 말

수련회 기간동안 은혜받은 것, 깨달은 것, 간증거리,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등



## 다음주 예배 안내

9월 4일 주일 예배는 수련회 장소에서 오전 10시 에 드립니다. (주일날만 오셔서 예배드리셔도 됩니다)

수련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KM 장년 예배 혹은 EM 회중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KM 장년 (본당,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영어회중 오전 11시, 친교실

## 김상범 목사님 심방

김상범 목사님께서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심방하십니다.

가능한 날짜, 시간을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Zoom, 대면 심방 모두 가능합니다.

심방신청 바로가기



## 찬양팀원 모집

건반 -1명, 베이스기타 -배우고 싶은 분들 환영 (문의:조학영)

## 예배팀원 모집

카메라 및 자막 담당자 1명 (문의: 박정호, 신승윤, 안혜진)

## 다음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회

8월29일(월) ~ 9월 3일(토) 오전 6:30

월 : 영유아부 (이희정 전도사) / 화 : 유치부 (곽은희 전도사)

수 : 유년부 (이정민 목사) / 목 : 중고등부 (이강현 목사)

금: 청년부 (김상범 목사) / 토 : 연합 무릎기도회 (김준섭 목사)

월~금: ZOOM으로, 토요일: 현장에서

## PSALM

##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제 50권 33호

AUG 28  
2022

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

##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안혜진

anhyejin0714@gmail.com

새가족 팀장

하지수

jisujeon2015@gmail.com

## 양육과정안내

##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512 454 1727 / fax -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